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구축

하태희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Development of the Structural Model of Middle-aged Me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Ha, Tae Hi

Department of Nursing, Daeg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이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밝혀내며,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중년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자 시도된 구조회귀모형분석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40세-59세 사이의 자녀와 직업이 있는 기혼의 중년남성 493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9월 10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과 Amo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중년남성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매개변인으로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사소통은 직업만족도를 매개하여 삶의 질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중년남성의 삶의 질 구조모형은 적합한 모형임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중년남성, 삶의 질,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men. The participants were 493 middle-aged men.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0 to October 31, 2011.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and AMOS 19.0. Self-esteem, social support, family communication showe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for middle-aged married men, and job satisfaction showed a direct effect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structural regression model of middle-aged me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was a good fit with the mode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self-esteem, social support, family communication and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increase middle-aged me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Key Words : Middle-aged man, Quality of life, Self-esteem, Social support, Family communication, Job satisfaction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4 April 2016, Revised 29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Ha, Tae Hi
(Department of Nursing, Daegu University)
Email: hth1427@daeg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 출생한 현재 우리나라의 중년 세대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에 따른 문제를 안고 있는 세대에 해당된다. 2010 인구주택총조사[1]에 의하면 40~59세의 중년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내국인 47,990,761명 중 14,769,607명으로 전체 내국인의 31%를 차지한다. 이 중 중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년남성은 특히 이 시기에 신체적 쇠퇴를 자각하게 되며, 이런 신체적 변화에 따른 감정적 반응이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2]. 가정적으로는 가족의 재조직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배우자, 자녀 및 노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족부양체계를 책임지고 지내온 중년남성은 단지 직업역할에 충실한 것이 남편이나 아버지,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반면, 현대의 가족체계에서는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 이외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함으로써 이런 가족의 요구에 민감하지 못한 중년남성들은 가족체계에서 소외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구비한 시기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통합하는 생의 절정기이기도 하지만 지위 상승에 따른 독자적 판단의 증가로 인한 막중한 책임감, 젊은 세대와의 경쟁과 지위유지에 따른 불안감 등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3]. 더욱이 최근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조기퇴직 유도로 중년남성들은 실직, 부도, 가정해체, 빈부의 격차 등의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직·간접적인 심리적 부담감을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담감과 중년기의 심리적 혼란으로 인해 중년남성들은 우울, 불안, 짜증, 피로, 자신에 대한 연민,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4]. 중년남성의 우울감이 클수록 삶에 대한 만족정도는 낮아지며[4], 심한 우울감과 같은 정신건강의 악화는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년층의 사망원인 중 자살은 악성신생물(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40대 남성 자살자 수는 46.6명, 50대

남성 자살자 수는 55.2명으로 같은 연령대 여성 자살자의 2.6배와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와 같은 보고들을 볼 때 중년남성의 삶의 질 관리는 가정과 직장 전체의 안녕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은 인간 생활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차원의 개념이다. Campbell에 의하면 객관적 차원의 삶의 질은 소득수준, 학력, 주거환경, 근로조건, 건강상태 등과 같은 환경적, 사회지표적 조건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서 환경적인 생활조건보다는 그것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나 느낌을 중요한 결정인자로 보고 있다[6]. 이에 본 연구에서는 Campbell의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중년남성에게 적용시켜 보고자 하였다.

Campbell에 의하면 삶의 질이란 삶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으로 정의하였다[6]. 또한 삶의 질은 흔히 행복감이나 안녕감, 만족감등의 개념과 혼용될 수 있으나 이는 높은 수준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가 실현된 정도로 삶의 질의 결과물이나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있다[6]. 중년남성은 사회적 중추로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가장으로서의 다양한 역할 요구를 수용함과 동시에 곧 닥쳐올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고, 직장에서는 지위에 따른 막중한 책임 및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삶에 대한 부담감은 어떤 시기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년남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공통된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삶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만족감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7,8,9,10], 사회적지지[11,12,13], 가족의사소통[2,14], 직업만족도[15] 등의 요인들이 삶의 질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삶의 질 관련 변인들을 개별 요인으로 하여 각각의 관계나 영향만을 살펴본 것이 대부분이고, 연구 대상 또한 일치하지 않아 중년남성의 삶의 질의 다요인적 인과관계

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년남성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신들의 특성을 이해받고 스스로도 효율적인 대처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다가오는 노년기를 잘 준비하도록 하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시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 및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결과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통한 자아수용, 지인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가족과의 조화, 직업을 통한 삶의 목표 성취와 이를 통한 개인적인 성장을 주관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본 Sastre의 삶의 질 결정 요인 [16], 삶의 질 예측 변수로 개인의 수행하는 역할의 내용, 역할경험의 질의 중요성을 제시한 Barnett와 Baruch의 역할이론적 견해[17]를 근거로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즉, 중년남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그들이 수행하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경험의 질인 가족 의사소통과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결국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수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모형 구축과 검정을 통하여 각 요인들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며, 이를 통하여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 목적의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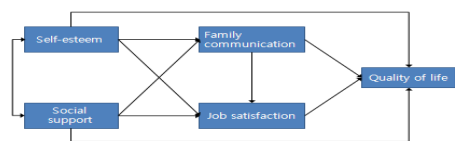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이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밝혀내며,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중년남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1.3 연구의 개념적 기틀 및 가설적 모형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Sastre의 삶의 질 결정 요인 [16], Barnett와 Baruch의 역할이론적 관점[17] 및 문헌 고찰을 토대로 도출하였다.

Sastre가 제시한 삶의 질 결정 요인인 자아수용, 긍정

적 관계, 배우자와의 조화, 자녀와의 조화, 삶의 목표, 개인적인 성장 중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통한 자아수용은 자아존중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긍정적 관계는 사회적인 긍정적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조화는 가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를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가족의사소통을 선정하였으며, 삶의 목표나 개인적인 성장은 중년남성의 과업달성과 이를 통한 자아실현적 측면에서 볼 때 직업적 요인으로 보고 직업만족도를 선정하였다. 기혼 및 중년남성 대상의 여러 연구에서 가정과 직장변인이 그들의 삶의 질이나 만족 및 심리적 복지감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2,11,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Barnett와 Baruch의 역할이론적 관점에 따라 중년남성의 가장 주된 역할인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의 질적 경험 변수로 가족의사소통과 직업만족도를 설정하여 이를 중년남성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화 하였다. 즉, 본 연구는 Sastre의 삶의 질 결정 요인, Barnett와 Baruch의 역할이론적 견해를 토대로 외생 변수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내생 변수인 가족의사소통과 직업만족도는 영향을 받으며 이는 결국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Fig. 1]과 같이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Fig. 1] Conceptual framework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을 기반으로 한 가설적 모형 구성에서 연구변수들은 주관적 삶의 질,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족의사소통 및 직업만족도를 포함한다. 가정된 개념적 기틀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사소통과[11,19],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11,20-22], 이는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외생변수이고,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 및 주관적 삶의

질은 내생변수이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15]. 또한 가족의사소통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2], 직업만족도는 가족의사소통과 주관적 삶의 질의 매개요인으로도 작용한다[18]. 주관적 삶의 질의 경우 하위 영역인 전반적인 삶의 느낌과 삶의 만족도를 관찰변수로 선정하였고, 자아존중감은 단일차원의 척도이므로 문항의 무작위 배치를 통한 문항 꾸러미화 방법[23]을 사용하여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 2의 관찰변수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하위 영역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관찰변수로 선정하였으며, 가족 의사소통은 부부 의사소통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관찰변수로 선정하였다. 직업만족도는 단일차원의 척도이므로 문항 꾸러미화 방법[23]을 통한 직업만족도 1, 직업만족도 2, 직업만족도 3을 관찰변수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설적 모형을 설정하고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부합도와 모형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회귀모형분석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생활연령을 근거로 하여 40세~50세 사이의 자녀와 직업이 있는 기혼의 중년남성으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자유모수치 대 피험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이들 간 비율이 최소 1:10~20의 기준[23]을 근거로 하여 대상자 수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의 자유모수치는 36으로 적절한 피험자의 수는 360~720명이므로, 총 500명의 대상자를 최종 목표 인원으로 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은 Campbell이 개발한 도구를 Lee가 변안한 주관적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6,24]. 이 도구는 최근의 삶의 경험에 대한 느낌 8개 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에 대한 느낌은 두 개의 형용사를 짝지어 제시하고, 최저 1점에서 최고 7점 사이의 어느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한 7점 Likert 척도이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퍼센트 개념을 사용하여 1.1의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며 11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삶에 대한 느낌 8~56점, 삶에 대한 만족도 1.1~12.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Lee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24], 본 연구에서는 .95 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도구를 Jon이 변안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5]. 이 도구는 긍정적 문항 5개, 부정적 문항 5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서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역문항 처리하며 점수의 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Jon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25],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2.3.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Park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Kim이 수정·보완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6]. 문항은 정서적 지지 7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의 4개의 하위영역,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모두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25~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이었으며[26],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 별 Cronbach's α 값은 정서적 지지 .90, 정보적 지지 .90, 물질적 지지 .89, 평가적 지지 .90

이었다.

2.3.4 부부의사소통

부부의 관계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Fournier, Olson, & Drukman에 의해 개발된 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ENRICH) Inventory를 Kim이 사용한 도구 중 하위영역인 의사소통 부분을 측정하였다[27]. 총 10개 문항으로, 문항내용은 중요한 감정과 신념을 서로 나눌 때에 파트너와 대화하는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부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일치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으며[27],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5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Barnes & Olson이 개발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 검사인 Parent-Adolescence Communication Scale을 Kim이 변안한 도구로서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2개의 하위요인, 부모용과 청소년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28].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개방형 의사소통 부모형 10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문제성이 적음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였으며[28],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6 직업 만족도

직업만족도 척도는 Miller의 The Attitude Toward Any Occupation Scale 중 우리나라 직업업성에 관계되는 문항을 선택하여 수정·변역한 도구를 중년남성에 맞게 수정·보완한 Kim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9]. 자신의 직분에 대한 보수, 사회 인정도, 적성 등에 관한 호의·비호의적 만족, 불만족의 정도가 표현된 것

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0~100점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2였으며[29],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 검증 및 자료수집을 위해 국립 B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진행에 대해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되었다(승인번호: 1-005).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에 앞서 간호학교수 1인, 정신전문의간호사 2인이 문항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중년남성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남성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응답의 용이성과 문항의 이해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2011년 9월 10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지역적 특성, 학력,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고루 선정하기 위해 서울, 대구,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도 지역에 위치한 5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연령의 고른 분포를 위해 동지역의 10개 아파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의표출 하였다. 설문조사 방법 및 연구 절차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제작하였으며, 학부모 대상의 조사 시에는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뒤 담임교사에게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후 담임교사를 통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조사내용 및 설문지 작성법에 대한 설명서, 동의서 및 설문지를 포함한 봉투를 학생의 가정으로 배부하였다. 서면으로 동의한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아버지가 직접 밀봉 하도록 한 후 학생을 통하여 받은 설문지를 담임교사를 통하여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반면, 아파트 주민은 연구자가 직접 아파트 부녀회를 방문하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 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조사내용 및 설문지 작성법에 대한 설명서, 동의서 및 설문지를 포함한 봉투를 아파트 주민에게 배부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연구자가 직접 부녀회를 통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서면 상 연구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의 고려를 위한 익명파 비밀보장, 연구결과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음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받고 동의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작성자가 직접 밀봉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걸린 시간은 20분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총 600부를 배포하여 54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본 연구에 부적합한 내용의 설문지 47명의 자료를 제외한 493명(82.2%)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삶의 질,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족의사소통 및 직업만족도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잠재변수들간의 변별성, 잠재변수와 관찰변수간의 수렴적 타당성, 모형 부합도, 경로계수 추정치 및 효과분석을 위하여 AMO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40~44세 47.1%, 50~54세 22.9%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졸이 57.2%를 차지하였으며, 결혼기간은 11~20년 51.9%, 직업은 사무직이 29.6% 이었다. 대상자 가족의 월수입은 301~400만원 23.5%, 종교는 51.9%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녀수는 2명이 69.0%를 차지하였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보통이 53.1%를 차지하였다<Table 1>.

3.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Table 2>와 같다. 모든 변수의 왜도 (skewness)와 첨도 (kurtosis)값이 절대값 2를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여 구조모형 분석 중 최대우도법 (Maximum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9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yr)	40-44	232	47.1
	45-49	95	19.2
	50-54	113	22.9
	55-59	53	10.8
Education	≤Middle school	18	3.7
	High school	110	22.3
	College	282	57.2
	≥Graduate school	82	16.6
	Missing data	1	0.2
Duration of marriage (year)	0-10	79	16.0
	11-20	256	51.9
	≥21	158	32.1
Job	Specialized job	92	18.7
	Management	76	15.4
	Office worker	146	29.6
	Service	57	11.6
	Production	35	7.1
	Independent enterprise	80	16.2
	Missing data	7	1.4
Family income (10,000won/month)	≤300	101	20.5
	301-400	116	23.5
	401-500	111	22.5
	501-600	65	13.2
	≥601	97	19.7
	Missing data	3	0.6
Religion	Yes	256	51.9
	No	237	48.1
Number of offspring	1	79	16.0
	2	340	69.0
	≥3	74	15.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91	38.8
	Moderate	262	53.1
	Poor	40	8.1

likelihood estimation)으로 모형부합도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잠재변수 및 관찰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각 관찰변수는 모두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검정결과 단일요인 척도의 문항 꾸러미화 방법 (item parceling method)에 의해 생성된 관찰변수를 제외한 모든 관찰변수들간의 상관관계수가 .76을 넘지 않았다. 또한 공차한계 (tolerance)는 0.1 이하인 변인이 없었으며(.595~.806), 분산확대인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을 넘는 변인이

없었으므로(1.241~1.681)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3]. 각 잠재변수와 관찰변수들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관찰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6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igure 2], 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는 .46~.72 범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하의 각 잠재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관찰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Observed Variables (N=493)

Variables		M(SD)	Min	Max	Skewness	Kurtosis
Self-esteem	Total	30.5(3.72)	19.0	40.0	0.13	-0.47
	Self-esteem 1*	15.8(2.14)	10.0	20.0	0.21	-0.32
	Self-esteem 2*	16.7(1.97)	8.0	20.0	-0.11	-0.13
Social support	Total	88.7(12.61)	34.0	125.0	-0.42	1.09
	Emotional	25.4(3.90)	9.0	35.0	-0.42	0.69
	Informational	21.0(3.45)	9.0	30.0	-0.23	0.39
	Material	20.1(3.54)	6.0	30.0	-0.37	0.85
Family communication	Appraisal	22.2(3.15)	8.0	30.0	-0.49	1.09
	Total	72.0(10.16)	42.0	100.0	0.10	-0.19
Job satisfaction	Spouse	34.3(6.10)	16.0	50.0	0.03	-0.29
	Parent-offspring	37.6(5.77)	19.0	50.0	-0.18	-0.26
Subjective quality of life	Total	70.0(12.23)	33.0	100.0	0.28	-0.23
	Job satisfaction 1*	24.5(4.70)	11.0	35.0	0.17	-0.52
	Job satisfaction 2*	24.9(4.34)	11.0	35.0	0.24	-0.15
General affect	Job satisfaction 3*	20.5(4.19)	7.0	30.0	0.12	-0.10
	Overall life satisfaction	39.8(9.11)	12.0	56.0	-0.29	-0.28
Overall life satisfaction		8.8(1.65)	3.3	12.1	-0.64	0.12

*Item parceling method

3.3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 검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대한 부합도지수는 $\chi^2=135.95$ ($p<.001$), $df=55$, $\chi^2/df=2.47$, $NNFI=.97$, $CFI=.98$, $GFI=.96$, $AGFI=.93$, $SRMR=.03$, $RMSEA=.06$ ($.04<RMSEA<.0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NC(\chi^2/df)$ 를 포함한 모든 부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모형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의 고정지수(critical ratio, CR)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의 모형 수정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Estimates and Effects of Final Model (N=493)

Variable indicator	SE	CR (p)	SM C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ubjective quality of life			.64			
Self-esteem	.07	3.69 (<.001)		.32 (.002)	.24 (.001)	.56 (.002)
Social support	.02	5.09 (<.001)		.25 (.002)	.07 (.001)	.32 (.002)
Family communication	.03	2.56 (.010)		.24 (.022)	.04 (.010)	.27 (.004)
Job satisfaction	.02	2.75 (.006)		.16 (.011)		.16 (.011)
Job satisfaction			.48			
Self-esteem	.19	5.20 (<.001)		.43 (.002)	.15 (.010)	.58 (.002)
Social support	.08	2.08 (.038)		.11 (.033)	.05 (.012)	.15 (.002)
Family communication	.09	2.68 (.007)		.24 (.014)		.24 (.014)
Family communication			.53			
Self-esteem	.18	7.89 (<.001)		.61 (.001)		.61 (.001)
Social support	.10	3.03 (.002)		.19 (.008)		.19 (.008)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3.4 최종 모형에 대한 추정계수 유의성 검증 및 효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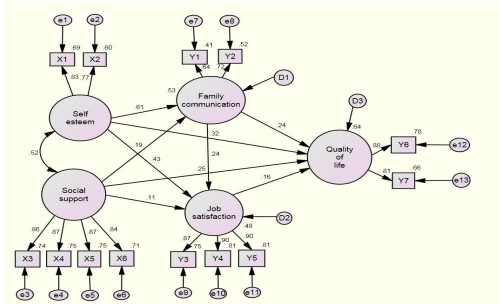
3.4.1 최종 모형에 대한 추정계수 유의성 검증

최종 모형에서 표준화 경로계수는 모든 경로에서 고정지수 값이 유의하였다<Table 3>. 대상자의 삶의 질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32$, $t=3.69$),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beta=.25$, $t=5.09$), 가족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beta=.24$, $t=2.56$),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beta=.16$, $t=2.7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43$, $t=5.20$),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beta=.11$, $t=2.08$), 가족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beta=.24$, $t=2.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61$, $t=7.89$),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beta=.19$, $t=3.03$)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4.2 최종 모형의 효과분석

표준화 경로 추정계수를 중심으로 최종모형은 [Fig. 2]와 같으며, 이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내생변수 중심으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있는 변수로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

지, 가족 의사소통, 직업만족도의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64%였다. 직업만족도에는 자아존중감, 가족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설명력은 48%였다. 가족의사소통에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주는 변수였으며 설명력은 53%였다.



[Fig. 2]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s
 X₁=self-esteem 1; X₂=self-esteem 2; X₃=emotional support; X₄=informational support; X₅=material support; X₆=appraisal support; Y₁=spouse communication; Y₂=parent-offspring communication; Y₃=job satisfaction 1; Y₄=job satisfaction 2; Y₅=job satisfaction 3; Y₆=general affect; Y₇=overall life satisfactio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경로를 설명하는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여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증진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모형에서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의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며, 이들 예측변인들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정도는 64%로 비교적 높은 예측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8,30,31]. 자아존중감은 자아를 긍정적 가치로서 인식하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의 수용과 인정으로부터 형성된다[8].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중년남성뿐만 아니라 기혼취업여성, 청소년,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영향력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8,9,15]. 이렇게 볼 때 자아존중감은 세대나 성별을 초월

하여 인간의 질적인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타인들과의 관계속에서 인정받고 수용감을 느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중년남성의 자아존중감 회복 및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지체계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12,13,21,30] 이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 또한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중년남성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며[11], 아버지역할만족도가 높고 직장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은 높아진다[2]. 이상의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중년남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 유지와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략은 중년기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인 행복한 노년기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년남성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여가나 취미생활, 사회봉사활동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동호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년남성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족적 변인,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원활한 관계는 삶의 위기로부터 중년남성을 보호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과 가족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상담 및 중재기법을 개발·적용하고, 이를 통하여 가족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중년남성은 보다 질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년남성에게 있어서 직업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토대인 동시에 이를 통한 만족감은 주관적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업상의 안정성 및 만족감 증진을 위한 방안 역시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평균수명 연장을 감안한 퇴직 연령 조정, 적절한 보수, 직업의 안정성, 재취업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정책적 보완, 직업을 통한 자아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직업 문화의 변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최종 모형에서 중년남성의 직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가족의사소통, 사

회적 지지의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48%였다. 이는 남편의 직업만족도에 대한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보고한 연구[20],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한 연구[22], 중년남성의 직장내 동료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직업스트레스가 높음을 보고한 연구[11], 중년남성의 가족요인인 결혼만족도나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직업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11], 중년남성의 결혼만족도나 아버지역할만족도가 클수록 직업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2]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나 가정과 관련된 요인들이 직장생활 만족도나 경력성공 등의 직장에서의 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보고된 연구들[32,33]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볼 때 내적인 자신과 외적인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정도에 따라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정도가 결정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가정내의 안정된 가정환경 또한 중년남성의 직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영역에서의 역할수행 경험은 다른 역할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유도한다[34]. 즉,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을 볼 때 중년남성에게 있어서 가정에서의 성공적인 역할경험은 직장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성공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일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원활한 관계가 중년남성의 직업적인 만족정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족과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해볼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셋째, 최종 모형에서 중년남성의 가족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53%였다. 이는 남편의 자아존중감과 부부적응이 정상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19], 중년남성의 직장내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고 부모역할 스트레스는 낮아짐을 보고한 연구[11]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남성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의사소통과 직업만족도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직업만족도는 가족의사소통과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혼취업여성의 결혼만족정도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에 대한 보

고[15]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가정생활이 일에 미치는 갈등은 생애만족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35]는 직업적 요인이 가정생활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혼남성의 가족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간의 매개요인으로 직업만족도를 제시하여 남성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일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한 선행연구[18]가 있다. 제시된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중년남성에게 있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만족정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내적 자원과 그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중년남성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내적 자원을 발휘하여 가정에서는 원만한 의사소통 및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에서는 일로서 인정받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년남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이나 사회적 지지체계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는 결국 매개요인에 의해 삶의 질에 대한 영향력 정도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사소통이나 직업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년남성의 신체적·심리적·사회문화적 특성을 강조한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년남성의 전환기적 위기관리에 대한 간호사 업무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영역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전략으로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족의사소통, 직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상담,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의 40대와 5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40대 혹은 50대, 결혼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변수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추후 이를 세분한 추후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성과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방법상 횡

단적 자료수집을 하여 중단적 연구에서와 같은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진향적인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 시점의 시간경과를 감안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ACKNOWLEDGMENTS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Internet]. 2011 [cited 2013 August 14].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47687.
- [2] Jang MJ, Kim DS. "The impact of personal traits, family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ged men from the baby boomer generation working in large corporation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9, No. 2, pp.1-11, 2011.
- [3] Elsie W. The middle-aged adult. In P. M. Hill & P. Humphrey(Eds.)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out life: A Nursing Perspective." New York : Willey. 1982.
- [4] Lee JI, Kim KH, Oh SH.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a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15, No. 3, pp.422-431, 2003.
- [5] Statistics Korea. Cause of death statistics in 2014 [Internet]. 2015 [cited 2015 September 23].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3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6] Campbell A.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pp.117-124, 1976.
- [7] Andrew S, Michael M. "Burden of psychosocial adversity and vulnerability in middle age: Associations with biobehavioral risk factors and quality of life." *Psychosomatic Medicine*. 65,pp.1029-1037,2003.
- [8] Park YR, Kwon HJ, Kim KH, Choi MH, Han SE.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self efficacy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9, pp.237-258, 2005.
- [9] Kim JY, Chung HJ.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 *Minn Welfare*. 13, pp.171-190, 2008.
- [10] Park YR, Son YJ. "Relationship of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elf-esteem, depression and stress to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women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Vol. 16, No. 3, pp.353-361, 2009.
- [11] Lee EA. "The relationships between middle-aged men's family and work related variables and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16, No. 3, pp.547-562, 2007.
- [12] Kim EK, Ha KS. "The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and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12, pp.811-820, 2013.
- [13] Desirée SAH, Thalita TASR, Pedro EAO, Luís OSS, Ana CAP, Carolina CSM, Raquel CF, Andréa MEBLM, Efigênia FF. Quality of life, job satisfaction and effort-reward imbalance at work: mental disorders and levels of physical activity among primary care worker. *Revista de Atencao Primaria a Saude*, Vol. 16, No. 3, pp.301-312, 2013.
- [14] Yoo H, Han HY, Oh HM, Park MJ. The effects of family communication and family cohesion on elderly women'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1(B), pp.469-483, 2015.
- [15] Kim GS, Yoon OH. "A study on the QOL of married working women: focused on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effect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Vol. 23, No. 2, pp.167-88, 2009.
- [16] Sastre Maria TM. "Lay conceptions of well-being and rules used in well-being judgements among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7, pp.203-231, 1999.
- [17] Barnett and Baruch. "Women's involvement in multiple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9, pp.135-145, 1985.
- [18] Seo HY, Lee SH. "Father's job satisfaction and family satisfaction, impact on life satisfaction." *Family Culture*. Vo. 14, No. 3, pp.27-51, 2002.
- [19] Mo EH, Kim JH. "The mediating effects of couple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 communication and marita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 14, No. 4, pp.887-900, 2002.
- [20] Choi JH. "Family stress, coping strategy and job satisfaction in dual-earner couples: Comparison of husband and wife in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3, No. 10, pp.55-68, 2005.
- [21] Hwang HW, Shin JY. "A study on the role conflict and the quality of life of dual-earner 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3, No. 14, pp.45-71, 2009.
- [22] Ha SH, Nam CH, Kwak HS, Sin, MH, Oh SY, Kim JH, & Lee, H.S. "Self-esteem as professionals influencing beauty artist's occupation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Cosmetology*. 15, pp.997-1011, 2009.
- [23] Moon SB.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725, Hakjisa, 2010.
- [24] Lee MS, Lee HK. "Gender differences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2, No. 1, pp.89-101, 1997.
- [25] J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Journal of Yonsei University*. 11, pp.107-129, 1974.
- [26] Kim YS.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master's thesis]." p.86,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27] Kim SB. "A study on bibliotherapy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for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dissertation]." p.151, Pyeongtaek University, 2010.
- [28] Kim YH, Shin HS.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between the model student family and the delinquent adolescent family." *Korean Nurse*. Vol. 29, No. 5, pp.69-83, 1990.
- [29] Kim, YH. "One study of subjective well-being and adjustment in middle-aged salaried men [masters thesis]." p.81, Korea University, 2000.
- [30] Kim SM, Kim EH.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injured workers : focusing on the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6, No. 4, pp.389-411, 2015.
- [31] Yoo YS, Son HJ. "Research on relationships between internet use and the elderly's life quality."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4, pp.235-44, 2012.
- [32] Friedman SD, Greenhaus JH. "Work and family-allies or enemies? What happens when business professionals confront life choices." p.288,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33] Voydanoff P. "Incorporating community into work and family research: A review of basic relationships." *Human Relations*. 54, pp.1607-1637, 2001.
- [34] Greenhaus JH, Powell GN.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 31, No. 1, pp.72-92, 2006.
- [35] Yi MS. "The work-family interface and its relation to well-being: the role of positivity." *Korean Academy of Management*. Vo. 21, No. 3, pp.371-410, 2013.

하 태 희(Ha, Tae Hi)



- 1994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5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대구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정신간호, 영상영화치료
- E-Mail : hth1427@daegu.ar.kr